

(가) 탄궁가 (정훈) / (나) 이존당기 (박지원)

(가)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A] 화자가 자신의 궁핍을 토로하는 도입부. 끼니와 의복이라는 최소한의 생활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를 나열한다.

안화·원헌은 청빈으로 이름난 고사 속 인물. 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가난이 더하다고 말하는 대조·인용 기법이다.

35번 ① 근거. '~거나 못 ~거나', '나같이 ~'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은 34번 정답 ⑤로 이어지는 (가) 축 요소이기도 하다.

(가) 봄날이 따뜻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 게 쥐 먹었고 /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 좁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B] 농사를 시작하려 하지만 농기구는 빌려야 하고 씨앗마저 축났다. 준비 단계에서 이미 생계 전망이 막힌 상황.

35번 ② 근거. 34번 ① 함정 주의 — '빠꾸기가 보채거늘'을 자연물과의 교감으로 읽더라도 (나)에는 그런 요소가 없어 '공통점'이 될 수 없다.

(가)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저 종을 주니 /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 싸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C] 종에게 넉넉히 먹이지 못하자 종이 눈을 흘기고 콧방귀를 끼는 반응을 보이고, 그 결과 농사는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해진다.

35번 정답 ③의 판별 지점. 종의 '부정적 반응'은 제시되지만 종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은 없다. 행위 열거만 보고 넘어가면 걸린다.

(가) 벼를 복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 ㉠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D] 벼를 복·술 시루라는 일상 살림살이가 놓고 녹슨다. 제사와 손님 접대라는 사회적 책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처지.

㉠ — 아무리 겨울이 따뜻하다 한들 몸을 가릴 옷이 없다는 뜻. 자신의 궁핍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근심'이다.

35번 ④ 근거이자 37번 정답 ④의 앞 절. ㉠을 회의감·그리움·상실로 넓혀 읽지 말고 '근심'으로 정확히 눌러 둘 것.

(가)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 어려서 지금까지 회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 … /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협박거늘 /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 … /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E] 화자가 술과 음식을 갖추어 전송하려 하자 가난 귀신이 도리어 화를 내며 떠나지 않겠다고 항변한다. 화자는 결국 그 신의를 인정하며 빈천을 자기 분수로 받아들인다.

가난을 인격화해 대화를 주고받는 가상적 설정. 관념을 인물처럼 세워 갈등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수법이다.

38번 정답 ①의 결정적 근거 — '온가지로 협박'하는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가난 귀신이다. 뒤이은 인식의 전환은 38번 ②(자기 위안)의 근거이며, 35번 ⑤도 이 대목이다.

(나) 비난을 피하고 위험을 멀리할 방법을 생각한 끝에, 방 하나를 치워 문을 닫아걸고 주렴을 내리고 살면서, 크게 '이존(以存)'이라 써서 방문에 걸어 놓았다. … 하루아침에 함께 놀던 술친구들을 사절하며 말했다. "자네들은 그만 오게. 나는 내 몸을 보존해야겠네."

장중거가 택한 해법 = 은거. 스스로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며, '나'의 조연은 이 결정 뒤에 나온다.

주역의 구절에서 당호를 취해 오는 방식. 제목 「이존당기」의 유래이자 기(記) 갈래의 서두 구성이다.

36번 정답 ②의 판별 지점 — '나의 조연을 바탕으로' 친구를 사절했다는 진술은 순서가 뒤집힌 것이다. ⑤의 근거도 이 문장.

(나) "지금 중거는 외물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 밀실에 숨어 살면서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 자기 몸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네. … 마침내 남들의 의혹을 자아내고 사람들의 분노를 집중시키게 될 뿐이네." // "㉡ 나의 여덟 자 몸을 끌고 장차 어디로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나'의 반박 — 해악의 근원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므로 공간적으로 숨는 방식은 해결이 못 된다. 38번 ③의 '은거에 대한 경계'가 이 대목이다.

㉡ — 은거마저 부정당한 장중거의 반문. 몸 하나 둘 곳조차 없다는 '막막함'이 드러난다.

37번 정답 ④의 뒤 절. ㉡(화자의 근심) / ㉢(인물의 막막함)이라는 짝이 성립하는지가 이 문항의 전부다.

(나) "그 예가 아닌 것은 귀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면 … 예가 아닌 것을 눈에 접하지 않는다면 … 입에 올리지 않는다면 … 그 예가 아닌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 // "이는 그대가 나로 하여금 몸 안에 몸을 숨기고, 보존하지 않음으로써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네."

'나'가 제시하는 진정한 자기 보존 — 귀·눈·입·마음에서 예가 아닌 것을 물리치는 내면의 절제. 장중거는 이를 받아들이며 벽에 써 붙이겠다고 답한다.

귀 → 눈 → 입 → 마음으로 옮겨 가며 같은 문장 틀을 반복하는 점층적 구성이고, 결말은 '보존하지 않음으로써 보존한다'는 역설로 압축된다.

34번 정답 ⑤의 (나) 축 근거이자 38번 ④의 근거. (가)의 '안표가 자주 빈들 ~ / 원헌의 가난인들 ~'과 짝지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묶인다.

갈래	(가) 가사(탄궁 가사) / (나) 고전수필(한문 산문, 기(記))
성격	(가) 사실적, 자조적 / (나) 교훈적, 설득적
작가	(가) 정훈 / (나) 박지원
시점/화자	(가) 가난에 시달리는 사대부 화자 / (나) 장중거와 문답하는 글쓴이 '나'
주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두 태도 — (가) 가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한 자기 위안, (나) 예(禮)에 근거한 절제로서의 참된 자기 보존

특징

- (가)·(나)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 주체의 생각을 드러냄 [34번 공통점]
- (가)는 가난을 인격화한 '가난 귀신'과의 가상 대화로 갈등을 구체화함
- (가)는 안표(안회)·원헌·장초 등 고사를 끌어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부각함
- (나)는 인물의 행위 → 글쓴이의 반박 → 인물의 재질문 → 대안 제시 → 수용의 문답 구조
- (나)는 '보존하지 않음으로써 보존한다'는 역설로 주제를 압축함

등장인물

- (가) 화자: 사대부이나 끼니와 의복조차 잊지 못하는 처지. 가난을 쫓아내려다 실패하고 받아들인다
- (가) 가난 귀신: 인격화된 가난. 평생을 함께했다며 떠나기를 거부하고 화자를 협박한다
- (나) 장중거: 키가 여덟 자를 넘는 호걸. 취하면 실언이 잦아 비난을 받자 밀실에 은거한다
- (나) 나(글쓴이): 은거를 경계하고 예에 따른 절제를 참된 자기 보존으로 제시한다

구성

- (가) [A] 고사 속 인물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난을 토로
- (가) [B] 농사 준비 단계에서 드러나는 생계의 막막함
- (가) [C] 종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해 농사가 방치됨
- (가) [D] 살림살이가 놓고 제사·접대의 책임을 감당 못 함 · ㉠
- (가) [E] 가난 귀신의 항변을 듣고 빈천을 분수로 수용
- (나) 장중거의 인물됨과 비난 → 은거와 '이존' 편액
- (나) '나'의 반박 → 장중거의 반문 ㉡ → 예에 따른 절제 제시 → 수용

전체 줄거리

(가)의 화자는 서른 날에 아홉 끼니를 겨우 얻는 궁핍 속에서 안회·원헌보다 자신의 가난이 심하다고 탄식한다. 농기구를 빌려 농사를 시작하려 하나 씨앗은 쥐가 훔쳐가고 종은 불평하며 밭에는 잡초만 무성하다. 제사와 접대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술과 음식을 갖추어 가난 귀신을 전송하려 하지만, 가난 귀신은 평생을 함께했다며 떠나기를 거부한다. 화자는 도리어 그 신의를 인정하고 빈천을 자기 분수로 받아들인다. (나)에서 진사 장중거는 호기로운 성품 탓에 비난을 받자 방문을 닫아걸고 '이존'이라 써 붙인 뒤 술친구들을 사절한다. 이를 들은 '나'는 자신을 해치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자기 몸에 있으니 밀실에 숨는 것으로는 해를 면할 수 없다고 경계하고, 귀·눈·입·마음에서 예가 아닌 것을 물리치는 절제야말로 참된 보존이라고 말한다. 장중거는 이를 '몸 안에 몸을 숨기는 일'로 받아들이며 벽에 써 붙여 성찰하겠다고 답한다.